EASTERN ECONOMIC FORUM

주간 정보 다이제스트: 극동 경제 발전

3.09.2016

동방 경제 포럼 소식

V. 푸틴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본회의에서 아태지역에서 '에너지 슈퍼 링'을 창출하기 위한 정부간 패널을 형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 프로젝트의 구상은 러시아, 중국, 한국 및 일본 기업인들이 내놓은 것이다. 러시아는 장기적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프로젝트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전력을 경쟁력 있고 특수한 가격에 확보할 용의가 있다. 또한 V. 푸틴대통령은 운송 인프라 개발 주제에 언급하여 정부에 새롭고 경쟁력 있는 범유라시아적 국제항로들을 형성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수뇌자는 자신의 연설에서 극동의 성공적 경제개발에 언급했다. 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공업생산성장율은 연 5%이상인데 전국적인 평균 가치는 -0.3%이다.

《타스 통신》

V. 푸틴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에 적용되는 전력요금이 인하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대통령은 자신이 국회하원에서 전력 요금의 현실적인 인하를 위한 법적 기초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아노보스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대한 법은 이의 레지던트들에 추가적인 토지가 제공되게끔 수정될 것이다. V. 푸틴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에서 투자자들과의 만남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했다.

《IA REGNUM 통신》

박근혜 대한민국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극동에서 농업관련 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다. 이들 중에는 냉동창고와 생선가공시설 구축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다.

《GAZETA.RU》

V. 푸틴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본회의에서 이 지역 및 인방과의 이 지역의 관계에 관한 박물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의 주장 대로 사람들이 극동에서 살고 싶고 이 지역을 자기 자녀의 미래로서 보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일상생활의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환경도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는 연해주의 중심지에서 이미 음악극장이 문을 열었고 마린스키 극장이 이 도시에서 지점을 설립한 이외에 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쥬미술관, 러시아미술관,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등의 지점이 분설되었다고 상기하여 말했다.

《타스 통신》

블라디보스톡시에는 동방경제포럼 범위 안에서 안에서 아이스하키 스타들의 갈라 시합이 진행되었다. 거의 70만 루블이 되는 입장권 판매 수입금 전체는 연해주 홍수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헌금되었다. 스타들이 참가하는 자선 시합을 보러 온 관중은 3만5천명 이상이었다.

《스포르트 엑스프레스지》

극동에서 큰 프로젝트 이윤세에 적용되는 조세우대기간은 연장될 것이다. V. 푸틴대통령은 해당한 법 개정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프라임》

극동개발재단은 석탄 채취 수량 증가와 기존의 생산력 확장을 위하여 '콜마르'사에 70억루블까지의 대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해당한 협정은 극동경제포럼에서 조인되었다.

《타스 통신》

동방경제포럼 중에 별도로 진행되는 러한 비즈니스 대화의 범위에서 Yu. 트루트네프씨는 '금년 상반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에 러시아 식료품 수출이 242%나 증가되었다'고 선언했다.

포럼에서 극동개발재단과 '아반가르드 공업단지'는 중소기업들의 발달을 위한 생산 및 물류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공동개발에 대한 협정을 조인했다.

《리아노보스티》

중국 동부에 있는 훈춘 거주지부터 연해주 남쪽에 있는 자루비노 항만까지Hyperloop 초고속 열차 철도 지선 건축은 5년정도 걸릴 것이다. 프로젝트 경비는$15 억 정도 될 것이다. 동방경제포럼에서 소개된 프로젝트에서는 '항로거리가 65 km 정도이며 프로젝트 이내에 열차의 평균시속은 740 km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Russia Today)

D. 만투로프씨는 '공업통상부가 'MAZDA SOLLERS Manufacturing Rus'사와 엔진공장건축에 대한 협정을 조인했다'고 밝혔다. 장관의 주장 대로 새 기업에서 생산량은 일년에 엔지 5만대 정도 될 것이다.

《Lenta.ru》

'인본 '미쓰이' 사가 '사할린-2호' 프로젝트 확장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려고 한다' 고 회사의 미구로 히로시 대표이사가 동방경제포럼에서 선언했다.

《Ren TV》

동방경제포럼 과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인민정부 리하이타오 부위원장은 '중국 측은 러중 기업들의 발달을 위한 재정적 기초 창출에 대한 발기를 지지했다. 브릭스 은행은 공동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IA Rambler News service》

극동 뉴스

'파블릭' 및 '로디오노프스코예' 2개의 채금지는 마가단 주에 있는 제1 선도개발구역의 레지던트회사가 될 수 있다. '아를란'투자회사와 지역의 정부는 선도개발구역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이 선도개발구역을 창출할 것은 '파블릭'채금지만의 개발을 위해 145억 루블 정도 유인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타스 통신》